

순천시 농업경쟁력 강화 FTA 넘는다

2017년까지 4887억원 투입 집중 육성 매실·오이·미나리 등 전국대표 브랜드로

순천시는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통해 FTA 파고를 넘는다. 순천시는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국·도비 1777억원과 시비 1951억원, 융자 및 자담 1159억원 등 총 4887억원을 투입, 농업 경쟁력을 향상하기로 했다.

품목별로는 ▲쌀 생산 1198억원 ▲축산 611억원 ▲과수 257억원 ▲채소 218억원 ▲친환경농업 184억원 등이다.

시는 순천 농업의 비전을 '희망농업 행복농촌'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 특품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시장지향적인 가공 ▲유통체계 확립 ▲도·농 상생의 행복 농촌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예산 97억원을 증액 편성해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우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특색있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1읍면·1특품' 생산에 지원을 하되 특히 가장 경쟁력 있는 매실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해 종자, 묘목에서 생산·판매·가공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가 특품 농산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은 '순천 미인단감'을 비롯해 승주 귤감, 주암 인삼, 외서 딸기, 낙안 배 및 오이, 도사 청정 미나리 등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15개 품목이다.

낙안에서 생산되는 겨울철 청정오이는 7832t을 생산해 116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도사동에서

생산되는 청정 미나리는 43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시는 FTA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농업분야 직원들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난 26일 간부회의 토론회를 거쳤다. 시는 앞으로 FTA 등에 대비, 농업인 및 관련 조직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FTA 대응 사업 발굴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조충훈 시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경쟁력있는 순천만의 컬러를 가진 대표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청정지역 보성감자 전국서 인기 서울 강남·강북구와 부산 연제구, 대구 북구 등 4개 자매결연 단체로 보내기 위해 보성 햇감자 산차작업이 한창이다. 이들 자매결연 단체는 감자 4000박스를 주문(7000만원 상당) 농산물 판로확대에 기여했다. <보성군 제공>

개별 배출시설을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

여수산단,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단지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특정 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최근 개별배출 시설단위로만 하던 특정 수질유해물질 규제 산업을 단위로 바꿔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여수산단과 경기도 시흥 스마트허브를 선정했다.

여수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부와 전남도, 여수시, 한국환경공단, 코오롱 위터엔에너지(주) 등 5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를 개별 배출시설 규제에서 종말처리

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폐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범 사업을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단지내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한계와 종말처리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 미흡으로 공단배수 70곳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30곳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계획됐다.

주요사업은 산업단지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시설 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수질감시체계 구축 등이 실시된다.

특히 환경부는 시와 협력해 시범사

업 기간 동안 산업단지 배수관망에 이동형 수질자동측정기 4개를 설치·운영하며 폐수 배출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유입·방류수 수질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위해 산업단지내 업체의 폐수배출 정보를 구축하고 시료 채수·분석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방류수 분석결과(2011년 최고치) ▲카드뮴 0.02mg/l (기준 0.02) ▲불소 3.65mg/l (기준 3)가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깨끗한 고흥바다로 오세요”

해돋이해수욕장 등 7월 중순까지 11곳 개장

고흥군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과 발포 해수욕장이 29일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11개 해수욕장이 7월 중순까지 모두 개장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주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고흥군은 백사장 정비와 더불어 해수욕장내 화장실과 샤워장, 음수대 등 편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점검을 완료했다.

군은 관광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11개 해수욕장에 총 24명의 안전요원들을 고정 배치하며, 여수해경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군은 여수 세계박람회 관람객

을 유치하기 위해 박람회 입장권을 가져올 경우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내 물놀이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

또 익금과 발포,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샤워장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는 여수 엑스포 관람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서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각종 편의제공 등 친절환 마인드로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새 얼굴

“다함께 잘사는 여수만들기 앞장”

박정채 여수시의회의장



“깨끗한 정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6일 치러진 여수시의회 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당선된 박정채(66) 의원은 “강력한 집행부 감시, 견제 및 다 함께 행복하고 잘사는 여수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과 사회활용을 위한 여수시와 박람회 조직위 간 소통을 위해

의회의 모든 역할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4선인 박 의원은 여수 주삼동 출신으로 진남중학재단 이사장과 여수시의회 4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강일여(62)씨와 사이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전북

“기업유치로 정읍 발전 가속화”

김생기 정읍시장 하반기 시장방향 발표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5기 전반 기성과 하반기 시장운영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시장은 하반기 주요 성과로 방사선융합 기술(RFT) 비즈니스 밸리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기반마련을 비롯해 ▲서민경제 애로해결로 생활안정의 기여 ▲새로운 경쟁력으로 희망을 주는 농촌화 ▲참여와 소통행정으로 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을 꼽았다.

김 시장은 하반기 시장운영 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읍 건설 ▲사람중심의 지역공동체 육성 ▲신바람 나는 경제활동으로 서민에게 희망 전달 ▲미래를 꿈꾸는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친환경 농축산산

업 육성으로 꿈이 있는 농촌 건설 ▲대한민국 최초의 복지 도시 건설 ▲KTX 정읍선상역사와 역세권 개발로 서남권 중심도시 도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녹색 도시 건설 ▲천년을 이어온 문화·관광의 명품도시 조성 ▲참여와 소통의 능률적인 시장운영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민생안정, 국가예산 5000억원대 확보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도시민 유치 적극 나섰다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공포

전원마을 1500가구 등 조성



남원시 운봉읍 가동마을.

남원시가 조례개정과 전서마을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인생 2모작’을 꿈꾸는 도시민 유치를 적극 나서고 있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6월 현재까지 남원시 도시민(귀농귀촌) 유치 실적은 131가구 294명이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도시민 유치를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고, 그동안 조례개정과 전원마을 조성 계획 등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시는 ‘남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29일 공포한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 전원주택 5가구 이상 주거단지에 상하수도 자재지원·진입로 포장, 상수도 미보급지역

관정 식수개발 등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시는 귀농 도시민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에 나선다. 올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민·관 공동 개발방식으로 매년 300가구씩 1500가구를 입주자 주도형 주택 400가구(16개 읍·면)를 건립할 방침이다.

입주자 주도형은 읍·면당 1개지구를 선정해 320세대를 조성하는 한편

전통구들 한옥 전원마을 1개소(30세대), 동호회·모임 등 5가구 이상 입주 지원 50세대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귀농·귀촌자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치 목표를 세워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기자 bs8787@

순창군 정구 실업팀 창단

감독·선수 7명 구성

순창군이 정구 실업팀을 창단했다. 순창군은 27일 청소년 센터에서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대한정구협회 및 도 정구연맹 임원, 초·중·고 정구선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구 실업팀 창단식을 가졌다.

군 정구실업팀은 체육진흥사업소장을 단장으로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됐다.

실업팀은 오는 10월까지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 등 3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공설운동장 클레이코트에서 훈련에 임한다.

또 전국체전 등 현지 적응훈련을 위한 각종 전지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황숙주 군수는 “실업팀 창단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해 엘리트 선수육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5개교에 70여명의 정구팀을 육성, 우수선수 배출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극심한 가뭄... 대파밭 물주기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27일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대파 농가를 찾아 물을 뿌려주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단신

김제시립합창단, 내일 문예회관에서 정기연주회

김제 시립합창단(단장 김용현 부시장은)은 29일 오후 7시 30분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지휘자 백동현 지휘로 20여 종의 줄 인형을 이용해 이색적인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정읍 내장산~만석보 ‘10대 명품 자전거길’ 선정

최근 정읍시 내장산과 만석보를 잇는 25.7km 길이의 자전거길이 행정안전부로부터 ‘10대 명품 자전거길’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두 바퀴로 떠나는 전국일주 자전거길” 책자에서 이 구간을 ‘내장산에서 동진강의 물길 따라 만석보까지 이르는 구간

순창군민, 민원처리 86.4% 만족

순창군이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86.4%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군·읍면 민원실과 인·허가 부서 방문 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기본사항과 민원처리성,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민원 만족도, 불만 및 개선사항 등 16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냉·난방시설 등 민원실 환경개선 ▲간소화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부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부안군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는 ▲18일 해양수산과·건설과·재무과·농축유통과 ▲19일 민생경제과·재난안전과·환경복지과 ▲20일 새만금도시과·주